

#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 점검 결과 및 유의사항

- 금융감독원, 2021. 9

## I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

- (정의)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·운영하는 조직을 지칭\*(외부감사법 제8조 제1항)
  - \*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·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·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(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)
- (목적) 회사는 구비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적으로 검증하고,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법규준수 여부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도록 하여,
  - 회사가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함
- (적용대상)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외부감사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

### 〈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사항(외부감사법 제8조) 〉

구 분	내 용
회사	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·운영하는 조직을 마련하고, 상근이사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
대표자 (내부회계관리자)	주주총회, 이사회 및 감사(위원회)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
감사 (감사위원회)	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를 이사회에 매 사업연도마다 대면 보고하고,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
감사인	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감사(상장법인)·검토(비상장법인)하고 그 결과를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으로 표명

- (법규위반시 제재) 증권선물위원회는 관련 법규를 위반한 회사, 대표자, 감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(외부감사법 제47조 제2항)

## II 점검 결과 분석

※ 2019, 2020 회계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을 점검

### (전체)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위반 현황 : 총 97건 위반

- 2019, 2020 회계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 여부를 점검\*한 결과,
- \* 주권상장법인, 대형 비상장법인(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)을 대상으로 회사, 회사대표자, 감사(위원회),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을 점검
  - 총 97건(회사 58건, 대표자·감사 28건, 감사인 11건)의 위반사례가 발견
  - 이 중 48건(회사 19건, 대표자·감사 18건, 감사인 11건)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('22.7.19.의결)가 300~1,500만원의 과태료\*를 부과
  - \* 외부감사법시행령 별표2 및 외부감사규정 별표9 「과태료부과기준」(‘붙임1’ 참조)
  - 2019, 2020 회계연도의 총 위반건수는 각각 41건, 56건으로 이전 4년(2015~2018 회계연도)의 위반 평균(약 40.5건) 대비 다소 증가
  - 이는 新외부감사법 시행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·검증절차가 강화된 것과 COVID-19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

#### 〈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위반회사 점검 결과〉

(단위 : 사)

회계연도	내부회계 미구축		내부회계 미보고		검토의견 미표명		위반 합계	
	회사	과태료 면제*	대표자 등	과태료 면제*	감사인	과태료 면제*		과태료 면제*
2015	34	28	5	3	6	1	45	32
2016	35	28	2	1	10	3	47	32
2017	36	33	2	-	4	4	42	37
2018	19	14	2	1	7	-	28	15
2019	22	13	15	4	4	-	41	17
2020	36	26	13	6	7	-	56	32
계	182	142	39	15	38	8	259	165

\* 회생절차, 폐업, 임직원수 5인 이하 등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

### (회사)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 위반

- (회사유형별) 위반회사(58사) 중 주권상장법인은 7사(유가증권 1사, 코스닥 6사)에 불과하고, 대부분은 비상장법인(51사)



- 주권상장법인은 7개사를 제외하고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나,
  - 비상장법인은 관리직 인력 부족, 법규숙지 미흡, 열악한 재무 상태로 인한 감사의견거절 등으로 의무 위반이 다수 발생
- (감사의견별)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미구축한 회사의 당해연도 감사의견 거절은 38사로 대부분(66%)을 차지
  -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내부통제이므로 내부회계관리가 부실할 경우 감사의견 형성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
- (과태료 부과) 위반회사 58사 중 19사에 대하여 각 300~1,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
  - (면제사유\*) 임직원 5인 이하의 영세기업이거나 기업회생,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과태료 면제
    - \* 외부감사법시행령 별표2 및 외부감사규정 별표9 「과태료부과기준」(‘붙임1’ 참조)

#### 주요 위반원인 분석

- (중요한 의사결정자 부재로 미구축) 경영권분쟁 등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정상적으로 구축 및 운영할 수 없는 경영권 공백 상태 기업이 다수를 차지
- (회생절차 신청으로 미구축) 기업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·운영·관리가 어렵다고 보아 과태료를 면제 하나, 회생절차 개시 이전 회계연도와 워크아웃 진행회사는 구축의무 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착오하여 위반

#### (대표자·감사)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평가의무 위반

- (보고/평가)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평가의무 위반은 28건으로 단순 착오 등의 법규숙지 미흡, 회생절차 진행 등이 주요 원인
  - 특히, 대표자 및 감사는 운영실태와 운영실태평가결과를 문서화는 하였으나, 주주총회, 이사회 및 감사(위원회)에게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
- (과태료 부과) 위반회사 28사 중 18사(26인)에 대하여 각 300~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

#### 주요 위반원인 분석

- (보고누락)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운영실태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였더라도, 대표자 및 감사는 해당내용을 이사회 등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
- (회생절차 진행중으로 미보고)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중인 상황으로 관리인 선임, 대규모 임직원 퇴사 등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구축이 되어있더라도 정상적으로 내부회계관련 보고를 진행하지 못함(과태료면제)

#### (감사인)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검토의견 미표명

- (회계법인 유형별) 위반 감사인 11사 중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등록회계법인은 2사이고, 나머지 9사는 비상장사만 감사 가능한 일반회계법인
  - ※ 상기 11사 중 8사는 회사 측의 의무 위반도 함께 지적
- (감사의견별) 감사인 11사의 위반과 관련된 피감사회사 12사에 대한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 7건, 의견거절이 5건
  - 위반의 대부분은 감사인이 단순 착오 혹은 감사의견거절 표명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 표명이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함에 따라 발생
- (과태료 부과) 위반 감사인 11사에 대하여 각 300~1,500만원의 과태료 부과
  - 회사의 과태료 면제사유(회생절차 개시, 임직원 5인 이하)가 감사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의무 위반시 대부분 과태료가 부과됨

#### 주요 위반원인 분석

- (내부회계검토의견 미표명) 2019, 2020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거절을 표명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하여 검토의견 미표명
- (최종 제출여부 미확인) 내부회계 관련 검토를 수행하고 의견까지 작성하였으나, 착오 등으로 검토의견 공시를 단순 누락
- (회사의 미구축)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, 검토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검토의견이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하여 검토의견 미표명



## 유의사항

## 1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를 통해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

- 최근 대규모 횡령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
- (회사)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설계·운영하여 횡령 등 부정행위를 예방·적발하고, 재무제표 신뢰성 및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
  - (감사인) 충분한 인력 및 자원을 투입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·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(검토)절차를 충실히 수행할 필요
  - (감독당국)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 점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, 강화된 공시서식 개발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를 추진 중

## 2 新외부감사법상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숙지 필요

- 회사의 대표자와 감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의무가 新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라 강화되었음
- (대표자)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·운영 책임자로서 상근이사 중 1인을 ‘내부회계관리자’로 지정하여야 하며, 주총·이사회·감사에게 내부회계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보고\*하여야 함
    - \* 新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주총보고가 추가되었으며, 이사회 및 감사에는 대면보고 필요
  - (감사) 대표자로부터 보고받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, ‘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’를 작성한 후 정기총회 1주전 이사회에 대면보고 하여야 함

## 〈 新외부감사법상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〉

구 분	舊 외부감사법	新 외부감사법('18.11.1. 시행)
조항	제2조의2~3	제8조
보고주체	상근임원 (내부회계관리자)	대표자 (내부회계관리자)
보고대상	이사회, 감사(위원회)	주주총회, 이사회 및 감사(위원회)
감사의 책임	운영실태평가, 이사회 보고 등의 의무가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 규정 없음	운영실태평가결과를 문서화하고 주주총회 1주전 이사회에 대면보고
인증	검토	감사*

\*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시행  
 '19년(2조원 이상) → '20년(5천억원~2조원) → '22년(1천억원~5천억원) → '23년(전체)

### 3 감사인의 검토(감사) 의견 표명의무

- ☐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, 의견거절인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(감사)의견을 표명해야 함
  -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았더라도 감사인이 검토의견 표명이 가능하기에 과태료가 면제되지 않음에 유의할 필요

### 4 최종 공시여부 확인 필요

- 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및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필수공시서류\*의 공시누락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필요(내부회계관리제도 필수 공시서류 양식 및 사례 붙임2 참조)
  - \* (사업보고서 제출 법인)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①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, ②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, ③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을 첨부  
(감사인) : 감사보고서에 ①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, ②감사인의 검토 의견 또는 감사의견을 첨부

## 붙임 1 과태료 부과기준(외부감사규정 별표9 참조)

#### ① 과태료 부과 방법

- 법정최고금액에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표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예정금액을 산정하고, 가중·감경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

< 과태료 부과 산식 >

$$\boxed{\text{법정최고금액}} \times \text{예정비율} = \boxed{\text{예정금액}} \pm \text{가중·감경 및 조정} = \boxed{\text{과태료 부과액}}$$

<과태료 예정금액 산정표 >

동기 위반결과	상	중	하
중대	기준금액의 100%	기준금액의 80%	기준금액의 60%
보통	기준금액의 80%	기준금액의 60%	기준금액의 40%
경미	기준금액의 60%	기준금액의 40%	기준금액의 20%

※ 위반동기 판단기준

- (1) 상 :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, 동기, 당해 행위에 이르는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
- (2) 중 :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, 동기, 당해 행위에 이르는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



경우

(3) 하 :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
※ 위반결과 판단기준

- (1) 중대 : 해당 위법행위가 언론에 공표되거나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되어 있어 회계정보의 투명성 및 신뢰성이 크게 훼손된 경우 등 사회·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등을 의미
- (2) 보통 : ‘중대’, ‘경미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
- (3) 경미 : 사회·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등을 의미

## ② 과태료 면제 사유

- (회생절차진행 등) 위반당시 「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업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등 정상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·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과태료 면제 [과태료부과기준 6.나]
- (임직원수 5명 이하) 위반당시 인력구조를 고려할 때 정상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·운영·관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과태료 면제 [과태료부과기준 6.나]
- (기타) 조치시 폐업, 청산, 파산 등 사실상 납부 능력이 없어 과태료 면제 [과태료부과기준 4.가]

###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·재정환율

통 화 명	9월 23일 [금]	9월 26일 [월]	9월 27일 [화]	9월 28일 [수]
미 달 러 (USD)	1408.00	1408.40	1429.70	1427.20
일 본 엔 (JPY)	989.15	981.53	988.80	985.43
영 국 파 운 드 (GBP)	1585.27	1527.13	1530.06	1529.82
캐 나 다 달 러 (CAD)	1044.39	1037.00	1041.03	1039.93
홍 콩 달 러 (HKD)	179.38	179.42	182.14	181.81
위 안 화 (CNH)	198.45	198.40	199.66	199.31
유 로 화 (EUR)	1385.33	1365.51	1374.08	1368.47
호 주 달 러 (AUD)	935.33	919.69	923.51	917.69
싱 가 폴 달 러 (SGD)	992.77	984.93	994.23	991.63
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(MYR)	308.30	307.61	310.60	309.54